

---

## 제5장 박해와 희망(계시록의 신앙)

---

### 1. 묵시문학의 성격

계시록은 성서의 마지막 책이다. 구약과 신약을 한 책으로 본다면 창세기로 시작되는데 인간역사의 타락으로 모순과 고난의 기나긴 여정을 거치다가 마침내 종말을 고하고 전혀 다른 새 세계 전개의 여명을 예고하는 것인데, 이 마지막 임무를 이 책이 하는 셈이다.

그런데 이 책은 오랫동안 천대를 받아왔고 또 많은 오해와 문제를 일으킨 책이다. 그 내용이 신약의 다른 책과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며, 지나치게 불가사이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아서 루터 같은 이는 처음에는 이 책을 신약에서 제외할 정도였다. 그후에도 이것은 아주 얇게 그리스도교로 색채된 유다 묵시문학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(볼트만). 그러나 묵시문학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면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.

‘묵시’(Apokalyptik)라는 개념은 종교사적 개념이며 그것은 동시에 한 문학유형에 속한다. 묵시문학이라고 부른 것이 그것이다. 그런데 묵시문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민족에게서나 볼 수 있는

데, 그것들은 다음 네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.

첫째, 묵시문학은 어떤 위기 또는 박해에 의한 수난기에 발생한다. 그것은 절망적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어떤 돌출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악한 세력을 쓰러뜨리고 새 세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보는 환상을 꿈꾸는데, 묵시문학은 이것을 신념화시킨 것이다. 이 같은 문학은 중동, 특히 이란 등에 많이 있었는데, 유다 사회에서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 땅을 점유하고 잔악한 방법으로 박해를 계속하는 것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봉기한 이른바 마카베오전쟁 때부터(B.C. 160년경) A.D. 2세기에 이르는 동안 그런 문학과 사고가 지배하다시피 했다.

구약의 여러 책에서도 그러한 단편들을 볼 수 있는데, 하나의 책으로 보존된 것은 다니엘서다. 다니엘서는 바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하여 싸웠던 시기인 B.C. 165~164년경에 씌어진 것이다. 그것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지만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세계사를 예고하고 있다. 그 뒤로 한국의 일부 신비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에녹서, 12족장의 유언, 모세의 승천, 4에즈라, 그리고 바룩서 등이 모두 이런 부류에 속하는 글이다. 이 글들은 전부 이스라엘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강점당하고 마침내 나라를 잃어버린 때에 나온 것들이다.

둘째, 묵시문학은 민중적 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.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체라는 점이 그렇고, 예화나 동화를 연상시키는 글로서 고난받는 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상적 이야기체로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대를 간접적으로 반영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.

셋째, 묵시문학은 예외없이 상징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. ‘묵시’

란 말이 그렇듯이, 그것은 어떤 집단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고, 어떤 집단에게는 잘 알 수 있게 하는 서술법이다. 묵시적 언어, 은유, 상징 언어 같은 것은 박해시 민중이 정보소통을 위해 시초에 썼던 암호이다. 같은 운명 아래 있는 집단은 함께 당하는 사건, 함께 분노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징언어를 써도 잘 알지만 그 집단 밖의 사람들은 모른다. 박해시의 민중언어가 비어(蜚語)라고는 하지만 묵시언어가 바로 수난시기의 민중언어인 것이다. 아마 우리의 『정감록』 같은 것이 이 부류에 속하는 문학일 것이다.

끝으로 묵시문학은 강렬한 민중신앙이 반영되어 있다. 아무리 목전에 강한 세력이 난무하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느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의미하며, 마침내는 하느님이 직접 다스리는 새 세계가 오리라는 강력한 신앙이 뒷받침하고 있다. 이 신앙이 민중을 절망에서 체념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재기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. 우리에게도 ‘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’, ‘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죽지 않는다’ 등의 속담이 많은데 이것은 모든 민중의 신앙이요, 지혜의 결실인 것이다.

신약에서 묵시문학서는 바로 이 책, 요한계시록 한 권뿐이다. 그러나 예수의 하느님 나라 선포, 바울로의 종말사상, 특히 데살로니카전서 4장 15~16절, 데살로니카후서 2장 1~12절, 고린토전서 15장 20~28절, 고린토후서 5장 1~10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~23절 등에서 묵시문학적 단편들을 볼 수 있다.

위의 단편들이나 묵시록은 그 서술양식이나 사조에 있어서 다니엘서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뚜렷하다. 그것은 모름지기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민중들에게 친숙해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. 까닭은 잠깐 동안의 햇빛이 비친 때를 제외하면 줄곧 비스듬한 상황 아래서 신음했으니까!

이 책에는 하늘과 땅, 영과 악마의 세계, 인간세계, 천사, 짐승, 검은 말, 청황색 말, 독수리, 사람의 얼굴을 가진 메뚜기, 용, 뱀, 표범의 얼굴을 한 초능력적 짐승이 등장하는가 하면, 머리에 무지개를 두르고 불기둥 같은 발을 가진 태양을 업고 달을 발판으로 하고 머리에 열두 별을 두른 면류관을 쓴 여인이 등장하며, 용과 천사가 공중전을 벌이고, 하늘 문이 열리며, 어떤 그릇에 담긴 것을 땅에 쏟으면 땅 위의 모든 생물이 멸절하며,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가을 나뭇잎처럼 떨어지는 등 해괴한 우주적 드라마가 전개되는데, 현대인에게는 아마 공상과학 만화영화를 보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. 그러나 그러한 언어 뒤에 숨은 역사적 현실은 심각했으며, 그것은 피나는 대결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확신이 있었으며, 냉정한 역사관이 있었다. 그리고 그 역사적 현실을 대표한 것이 바로 로마제국이다.

## 2. 로마제국과의 대결

다니엘서가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아래서 씌어진 것인 데 대해 계시록은 로마제국의 확장 아래서 씌어진 민중의 저항의 글이다.

이 글이 반영된 시대는 이른바 플라비우스(Flavius)시대이다. 그것은 베스파시아누스(Vespasianus, A.D. 69~79년 재위)와 그의 두 아들인 티투스(Titus, A.D. 79~81년 재위) 그리고 도미티아누스(Domitian, A.D. 81~96년 재위) 3대가 카이사르로서 횡포하던 시기이다. 사람들은 이때를 플라비우스의 삼위일체 체제시대라고 한다.

A.D. 66~70년의 유다전쟁으로 로마제국은 이스라엘을 파멸시켰